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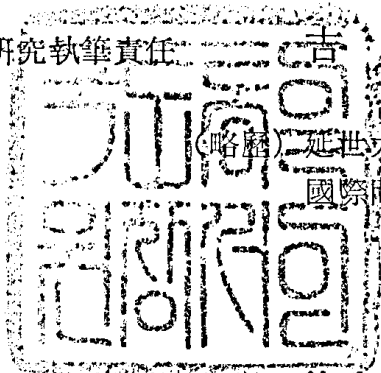
3610
34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金日成

金日成의 對外發言을 通해 본 政 治 觀

研究執筆責任 吉 成 喆



(略歷) 延世大學校政治外交學科卒業 (1959)
國際問題研究所北韓課長 (現在)

刊行責任 徐 極 性 (調查研究室研究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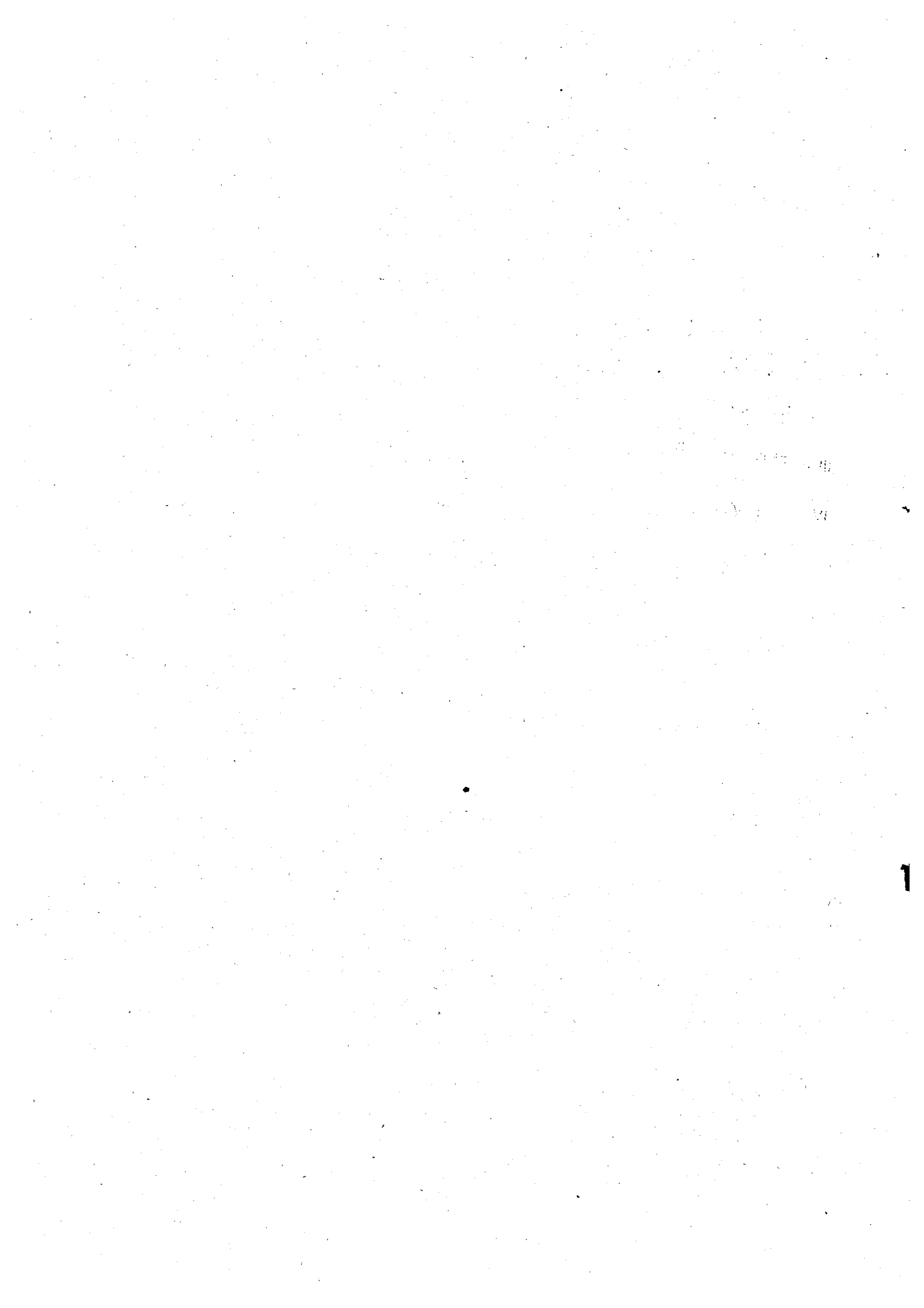
{ 북일대의 지명
" 대공산권 지명
" 대서방권 "
" 대동방권 "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对外政策的 基本路線	3
II. 对共產圈 政策	5
III. 对自由圈 政策	21
IV. 对中立圈 政策	45



I. 對外政策의 基本路線

北傀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中·蘇를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政治·經濟·軍事·文化等 諸般分野에 있어서의 關係強化와 共產諸國 및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諸國과 反帝 特히 反美紐帶의 強化 그리고 世界 모든 나라들과 實利的 通商關係의 擴大等으로 大韓民國의 弱화와 그들의 國際的 地位의 向上을 基本路線으로 定하고 있다.

이것은 1961.9 北傀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金日成이 社會主義陣營의 統一과 이 陣營國家들 間의 親善과 協力關係의 發展은 各其 나라의 民族的 獨立을 公고히하고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 社會主義 建設을 容易하게 하는 重要한 要因이며 朝鮮人民은 今後에도 社會主義陣營의 成功과 그 不敗의 統一을 強化하며 蘇聯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國家 人民들과의 親善協力 關係를 發展시키기 爲해 全力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明白하다.

또한 同大會報告에서 우리黨과 政府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들 間의 平和關係를 맺고 發展시키는 것을 우리 對外政策의 重要한 一環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今後에도 一層 많은 나라들과 平等互惠의 原則에 立脚하여 對外貿易을 擴大하고 發展시키기를 願한다 라고도 말하며 北傀의 對外路線을 闡명한 바 있다.

이와같이 그들 外交의 基本原則은 맑스·레닌主義의 基本原則에

立脚한 國家的 民族自決의 原則을 最大로 適用하려고 하고 있다.

北傀는 1966.8 労働党機關紙 「労働新聞」에서 "自主성을 擁護하자"라는 題目的 論說에서 처음 自主獨立原則을 내 세웠고 그후 同年 10月의 党代表者 會議에서의 金日成의 "現情勢와 우리 党的 課業"이라는 報告와 6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第4期 1次會議에서 採択한 이른바 政府 10大政綱의 金日成報告에서 "主体思想을 確立하여 國家活動 모든 分野에서 自主, 自立, 自衛의 革命精神을 取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取하고 있는 自主性的 原則 特히 對外關係에서의 自主性的 原則은 中共과 蘇聯의 各己 自己利益追求와 南北韓의 分斷狀態라는 條件으로해서 그의 主体性은 實際로는 中·蘇紛爭에서 中立的 態度만을 維持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北傀는 이러한 自主路線에 立脚한 外交原則을 내세우면서도 相對國의 社會制度에 適應한 外交路線을 取하고 있는바 共產, 自由, 中立障營으로 나눈 北傀의 對外政策을 金日成의 發言을 通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II. 對 共 產 國 政 策

北傀의 對 共 產 國 政 策은 " 平 等 과 自 主 性 의 原 則 에 依 拠 하 여 團 結 하고 協 力 하 며 國 際 的 連 帶 性 을 強 化 하 는 것 을 兄 弟 國 과 의 關 係 에 서 我 們 黨 이 一 貫 되 게 堅 持 하 고 有 는 確 固 不 動 的 原 則 이 며 馬 斯 列 寧 主 義 의 原 則 的 立 場 을 지 키 며 自 主 性 을 尊 重 하 여 社 會 主 義 國 家 와 의 統 一 과 國 際 共 產 主 義 運 動 의 團 結 強 化 를 도 모 한 다 " 는 것 으 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對 南 赤 化 戰 略 을 爲 하 여 對 美 強 硬 鬪 爭 路 線 을 堅 持 하 고 平 和 共 存 에 立 脚 한 蘇 聯 의 對 美 協 調 政 策 을 反 對 하 면 서 中 共 의 對 美 強 硬 路 線 을 支 持 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中 共 路 線 追 從 은 對 蘇 關 係 의 惡 化 를 招 來 하 였 고 이 로 인 하 여 經 濟 및 軍 事 援 助 의 中 斷 을 招 來 하 여 7 個 年 經 濟 計 劃 의 失 敗 와 自 身 의 安 全 保 障 에 위 험 을 가 져 왔다. 事 實 北 傀 는 理 念 的 으 로 는 中 共 에 그 리 고 經 濟 · 軍 事 的 實 利 를 爲 해 서 는 蘇 聯 을 追 從 해 왔다.

그들은 中 · 蘇 사 이 에 서 自 身 을 保 護 하 기 爲 해 서 1966.8.15 自 主 路 線 을 내 세 워 蘇 聯 을 修 正 主 義 라 고 批 判 하 고 또 한 中 共 을 모 험 主 義 · 高 조 주 의 라 고 非 難 하 면 서 對 蘇 接 近 의 名 分 을 찾 았 던 때 도 있 었 다. 北 傀 의 65 年 以 後 의 對 蘇 接 近 은 根 本 的 으 로 理 念 問 題 의 差 異 로 해 서 그 限 界 性 이 나 타 나 고 有 는 것 이 다. 이 러 한 現 狀 은 그 들 이 必 要 로 하 는 經 濟 援 助 를 蘇 聯 으 로 부 터 어 느 程 度 얻 을 수 있

으나 하는 問題와 關聯이 있다.

그들은 蘇聯으로 부터의 支援이 開始된 以來 70年代 初까지 가
까운 關係를 維持했었다.

그러나 地政學的 位置와 理念關係로 때때 蘇聯과의 關係改善이 中
共과의 關係를 惡化시키는 方向으로 계속 作用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그들이 希求하는 自主性的 確立과는 相反되는 것이다.

때문에 中共의 文化大革命이 一段落된 1969年 以後 점차 對中共
關係는 改善되었으며 급기야 血盟關係의 復活에 도달하게 되어 75.4
에는 金日成의 中共訪問까지 實現되었다.

現在 그들의 對共產圈外交는 東西間의 接近傾向 特別 中共과 蘇
聯의 美·日等과의 關係接近에 자극받아 實利爲主의 政策을 取하고
있는바 이는 그들의 自主性 確立이라는 政策目標과 結合시켜 中·
蘇兩國間 양다리 政策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傀의 對共產圈外交를 75年初 金日成의 中共을 비롯한
東歐諸國 訪問時에 行한 演說을 통해 各國과의 關係를 살펴보겠다.

<中 共>

75.4.18 金日成이 訪中時 群衆大會에서 演說한 內容을 살펴보면
『朝, 中親善은 「맑스」 「레닌」主義와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基礎하고 있는 階級的 兄弟들 사이의 戰鬪的 親善이며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共同의 鬪爭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高貴한 親善이며 그

어떤 試鍊도 이겨내고 영원히 꽃 피어나갈 不滅의 親善이다』라고
言及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中共訪問이 우리 두 黨,
두 나라, 두 人民들 사이의 傳統的인 親善協助關係를 現時代發展의
趨勢에 맞게 보다 높은 段階으로 發展시키며 亜細亞와 世界革命運
動을 促進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한편 오늘 우리 時代는 帝國主義의 全般的 危機가 더욱 심각화
되고 社會主義 나라들과 第三世界의 人民들이 世界舞台의 主人으로
登場한 歷史의 새時代로서 낡은 勢力과 新興勢力 사이의 끊임없는
鬭爭으로 特徵지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國際舞台에서 革命力量과
反革命勢力 사이의 鬭爭이 날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現段階에
서 우리 두 나라 人民들의 反帝共同鬭爭을 強化하는것은 매우 重
要한 意義를 가진다.

그리고 現時期 第三世界 人民들의 鬭爭은 이미 爭取한 政治的
獨立을 鞏固히 하는것과 함께 完全한 經濟的 解放을 이룩하며 帝
國主義者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國際經濟秩序를 허물어버리고 새로
운 國際秩序를 確立하기 爲한 集團的인 共同鬭爭으로 深化發展되고
있다. 또한 朝鮮人民은 지난날의 兪地의 共通性和 오늘의 鬭爭의
共通性으로 하여 第三世界 人民들과 한 戰線이 튼튼히 서있으며
그들과 緊密한 共同鬭爭을 벌리고 있다.

한편 鬭爭 속에서 生産된 第三世界는 우리 時代의 威力한 反帝
革命力量으로서 人類歷史를 前進시키는 커다란 推進力으로 되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同年 4.28 金日成이가 中共側이 開催한 演說한 內容을 살펴보면 "우리 代表團의 이번 中國訪問은 훌륭한 結果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피로써 맺어진 朝中 두나라 人民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의 불패의 위력을 온 世上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한 "맑스·레닌"主義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기초한 우리 두나라 人民들 사이의 친선團結의 強化는 두나라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을 促進하며 世界 進歩的 人民들의 團結을 強化하고 反帝革命偉業의 勝利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라고 中共과의 親선을 피하려고 광분하는 한편 "朝鮮人民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偉業의 勝利를 爲하여 永遠히 兄弟的 中國人民과 굳게 손잡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世界의 모든 反帝革命力量과 團結하여 鬪爭할 것이다" 라고 中共과 反帝 共同鬪爭을 展開해 나갈 것을 促求하고 있다.

<루마니아>

75.5.25 金日成이 「루마니아」를 訪問코 歡迎演說에서 演說한 內容을 살펴보면, 朝鮮人民과 루마니아 人民은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社會主義 偉業의 勝利를 爲하여 共同으로 鬪爭하는 階級的 兄弟로서 오래前부터 「맑스」-「레닌」主義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基礎하여 두터운 유대를 맺었다.

그리고 루마니아와 北傀 兩國人民들 間의 오늘의 훌륭한 親善關係는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에 基礎한 兄弟的 社會主義 國家 人民들의 自願的이고 同志的인 親善關係를 反映하고 있다. 오늘 루마니아 共産黨과 政府는 自己의 卓越한 領導者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同志의 領導 밑에 國家의 全般的 發展과 關聯한 問題에서 自主的인 立場을 堅持하고 있으며 國際活動 分野에서도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에 基礎하여 國家들 사이의 關係를 發展시키고 있다.

또한 造成된 情勢에서 社會主義國家人民들과 國際勞動 階級民族解放人民運動과 世界 모든 進步的 力量이 굳게 團結하여 鬪爭한다면 決定的으로 우세한 力量으로 帝國主義 侵略과 戰爭 政策을 저지 破綻시키고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 偉業의 勝利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또한 「루마니아」 共産黨과 政府와 人民은 지난 朝鮮戰爭 時期와 戰後 復旧 建設時期에 우리 人民에게 物心兩面으로 援助를 주었으며 오늘도 社會主義 建設과 祖國統一을 위한 우리人民의 正當한 鬪爭을 積極 支持 聲援하여 주고 있다.

한편 우리는 社會主義 國家들이 意見上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帝國主義를 反對하며 植民地 民族解放 運動과 國際 勞動 運動을 支持하며 社會主義와 共産主義에로 繼續 나가며 內政不干涉, 平等과 互惠(호혜)의 原則을 지키는 基礎위에서 능히 團結을 이룩할수 있다고 確信한다.

그다음 同年 5.24 歡迎群衆大會에서 金日成이가 연설한 內容을

보면 勞動階級の 偉業은 國際的인 共同偉業이며 每個 社会主義나라의 成果는 世界社会主義 力量의 共同成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젯날 뒤떨어진 農業國家였던 「루마니아」가 오늘날 社会主義 工業國家로 변모한 것을 볼때 自己의 成果를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루마니아」 共産黨과 政府는 오늘의 時代的 潮流에 맞게 國際分野에서 每個 黨이 自主性を 尊重하는데 基礎하여 社会主義 國家들과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團結을 強化 하며 反帝力量의 國際的 協助와 連帶性を 公高히 發展시키기 爲하여 積極 努力하고 있다.

루마니아 共産黨과 政府가 國際 舞臺에서 활약하고 있는 積極的인 役割과 특히 「니콜라·차우세스쿠」 同志의 精力的인 活動에 依하여 「루마니아」 社会主義 共和國의 國際 威信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社会主義 共和國은 특히 UN을 비롯한 國際 舞臺에서 南朝鮮으로 부터 모든 外國 軍隊를 撤去시키고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爲한 우리 人民의 鬪爭을 지지하여 많은 活動을 하고 있다.

朝鮮人民과 루마니아 人民은 오래前 부터 「맑스」 - 「레닌」主義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 自主성과 完全한 平等의 原則에 基礎하여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社会主義 偉業의 勝利를 爲한 共同鬪爭 속에서 굳은 兄弟的 親善의 유대를 맺었다.

그리고 同年 5.26 金日成이가 「루마니아」와 北德間的 親善 및 協助에 關한 條約 調印式에서도 演說한바 그 內容을 보면 社会主義

나라들 사이에 이같은 文件을 採択한것은 처음이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러한 길을 開拓하였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볼때 우리의 文件은 特別히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우리 두黨이 이러한 文件을 採択할수 있었던 것은 오래동안 自主性を 堅持하고 民族的 獨立과 平等 互惠(호혜)의 原則에서 緊密한 關係를 發展시켜온 結果이다.

萬一 우리가 自主的인 原則을 始終一貫 堅持하지 않고 그 어떤 지휘봉에 따라 움직였더라면 이와같은 훌륭한 文件을 採択하는데 到達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傳統的으로 發展하여온 우리의 親善關係와 團結이 自主性에 基礎한 親善 協助條約에 의하여 앞으로 더 幅 넓게 더 힘있게 公고 發展되리라고 確信한다.

<불가리아>

75.6.5. 金日成은 불가리아訪問時 다음과 같은 內容의 演說을 하였다. 즉 「世界革命의 勝利는 每個 나라에서의 革命의 勝利를 通하여 이루어 지며 每個 나라에서 社会主義建設이 잘 되고 社会主義陣地가 튼튼해 질때 全般的 社会主義의 威力이 強化되고 世界革命의 勝利가 促進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黨은 우리 나라에서 革命과 建設을 잘 하는 것이 곧 國際勞動階級의 革命偉業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確信하고 社会主義革

命과 社会主義建設을 힘있게 推進시켜 왔다.

우리 人民은 党的 領導 밑에 맑스·레닌主義를 우리 나라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우리 党的 路線과 政策을 徹底히 貫徹하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期間에 轉變시켰으며 社会主義 東方哨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그는

「오늘 全般的 情勢는 社会主義와 革命의 便에 有利하게 發展하고 있으며 社会主義나라들에서는 社会主義建設이 成果的으로 推進되고 있어 世界社会主義力量은 날로 強化되고 있다」고 強調하였다. 또한 그는

「社会主義나라들은 帝國主義의 侵略과 戰爭政策을 저지 破綻시키고 世界の 平和를 維持鞏固化하기 위하여 反帝國爭을 계속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人民들의 解放戰爭을 적극 支援하여야 한다」라고 力說한後 이와 關聯하여

「우리는 社会主義나라들과 國際勞動階級,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人民들과 世界の 모든 進歩的 力量이 굳게 團結하여 反帝國爭을 힘차게 벌린다면 帝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을 저지, 破綻시키고 平和와 社会主義偉業의 終局的 勝利를 確固히 保障할수 있으리라고 確信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党和 人民은 革命의 主体的 力量을 百方으로 強化發展시키는 것과 함께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을 우리 革命勝利의 重要한 要因으로 認定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注力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즉

「우리는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主義와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 旗幟, 反帝鬭爭의 革命的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나라人民들과 團結하며 國際勞動階級과 團結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나라人民들과 團結하며 世界의 모든 平和愛護人民들과 團結하여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獨立과 社會主義共同偉業의 勝利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75年 金日成의 對外活動中 東歐羅巴 및 아프리카 數個國에 對한 巡訪外交가 가장 中心을 이루었다고 말할수 있다. 金日成의 海外 巡訪中 그의 演說속에서 찾아볼수 있듯이 主로 訪問各國에 對한 親善團結 및 北傀에 對한 支持 呼訴를 되풀이 強調하여왔다.

具體的 연설 內容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75年6月2日 불가리아에서 행한 演說에서 그는 "우리 代表團에 對한 당신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환대는 共同의 目的과 理想을 實現하기 爲하여 鬭爭하는 階級的 兄弟로서의 親近感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맑스·레닌主義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基礎하여 우리 두 나라 人民들 사이에 맺어진 親善團結의 不敗性을 示威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共同의 戰取物인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고 鞏固發展시키는 데서 앞으로도 굳게 손잡고 서로 支持協助하여 나가려는 두 나라 人民들의 共通된 意志와 心情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每個 社會主義나라는 우선 自己 나라에서 社會主義建設을 잘하는 것으로써 世界革命發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互相支持와 援助를 주

있으며 오늘도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한 우리 人民의 正當한 鬪爭을 積極 支持協助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人民共和國 政府는 國際舞臺에서 帝國主義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朝鮮> 操作策動을 反對하며 <유엔군>의 看板밑에 南朝鮮에 있는 모든 外國軍隊의 撤去를 堅決히 主張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包含한 兄弟나라들의 이러한 活動은 우리에게 매우 貴重한 것이며 祖國統一의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人民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旗幟 反帝鬪爭의 革命的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나라 人民들과 團結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人民들과 團結하며 世界의 모든 進歩的 人民들과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偉業의 勝利를 爲하여 繼續 힘차게 鬪爭할것입니다.

우리 人民은 「불가리아 人民과의 親善을 매우 貴重히 여기고 있으며 國際革命力量과의 연대성을 強化하는 것을 우리 革命의 勝利를 爲한 重要한 担保의 하나로 認定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75年 6月 3日 演說에서는 우리는 오늘 두개 道에서 아침부터 저녁 어두울때까지 하루종일 全體 人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朝鮮人民에 對한 불가리아 人民 들의 親善의 感情이 얼마나 두터운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두나라 人民들이 社會主義를 建設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한 戰

線에서 튼튼히 團結되어 있다는 것을 證明하였다고 力說하였으며
75年 6月5日 불가리아의 索菲亞市 群衆大會에서 한 演說에서는
그는 朝鮮人民과 불가리아人民은 비록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自由와 民族的 解放, 社會主義偉業의
勝利를 爲한 共同鬪爭에서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的 親善의 유대를
맺었다.

우리 두 나라 人民들사이의 戰鬪的 親善은 일찌기 朝鮮戰爭時期
에 그 不敗의 生活力을 남김없이 發揮하였읍니다.

또한 金日成은 同演說에서 "世界革命의 勝利는 每個 나라에서의
革命의 勝利를 通過 이루어집니다. 每個 나라에서 社會主義建設이
잘 되고 社會主義陣地가 튼튼해질 때 全般的 社會主義의 偉力이
強化되고 世界革命의 勝利가 促進되는 것입니다. 우리 黨은 우리
나라에서 革命과 建設을 잘하는것이 곧 國際勞動階級의 革命偉業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確信하고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힘있
게 推進시켜 왔읍니다.

우리 人民은 우리 黨의 領導 밑에 맑스·레닌主義를 우리 나라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우리 黨의 路線과 政策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期間에 自主的 民
族經濟의 튼튼한 土臺를 가진 社會主義나라로 轉變시켰으며 社會主
義東方 哨所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國際共產主義團
結 強化에 있어서 自主路線에 입각한 每個國家의 独自の 發展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한편 金日成은 같은 연설에서 오늘의 國際情勢를 "오늘의 全般의 情勢는 社會主義와 革命의 便에 有利하게 發展하고 있습니다. 社會主義나라들에서는 社會主義建設이 成果的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世界社會主義力量은 날로 強化되고 있습니다" 라고 評價했다.

이와같은 情勢判斷에 기초하여 社會主義나라들은 帝國主義의 侵略과 戰爭 政策을 저지파탄시키고 世界의 平和를 유지공고화하기 爲해 反帝鬪爭을 繼續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人民들의 解放鬪爭을 積極 支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社會主義 나라들과 國際勞動階級,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人民들과 世界의 모든 進歩的의 力量이 굳게 團結하여 反帝鬪爭을 힘차게 벌린다면 帝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을 저지 파탄시키고 平和와 社會主義偉業의 最終적 勝利를 確固히 保障할수 있으리라고 確信합니다" 라고 하여 社會主義諸國의 團結된 反帝鬪爭을 促求했다. 또한 金日成은 同演說을 통해 以上과 같은 必要性에 依한 北傀略線을 提示하고 있는 바 즉 "우리 黨과 人民은 革命의 主体的 力量을 백방으로 強化發展시키는 것과 함께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을 우리 革命勝利의 重要한 要因으로 認定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主義와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의 기치, 反帝鬪爭의 革命的 기치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 나라 人民들과 團結하며 國際勞動階級과 團結하며 世界의 모든 平和愛護人民들과 團結하여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 共同偉業의 勝利를 爲하여 계속 역세계 싸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主張했다.

<유 고>

1975年6月6日 金日成의 유고訪問時 演說中에서 北傀-유고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朝鮮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 人民들은 帝國主義를 反對하고 民族解放과 階級解放을 위한 共同의 鬪爭속에서 굳은 親善의 유대를 맺었다. 우리 人民은 兄弟的 유고슬라비아 人民과 의 親善關係를 貴重히 여기고 있으며 最近 年間 두 나라 사이의 關係가 여러 分野에 걸쳐 擴大發展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다. 朝鮮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 人民들은 지난날 反帝 反 파쇼 武裝鬪爭을 進行한 빛나는 革命傳統을 지니고 있으며 國際勞動階級の 偉業을 위한 길에서 굳은 親善의 유대를 맺었습니다. 自主性을 要求하는 國際共產主義運動發展의 現段階와 國際舞臺에 새로 登場한 第3世界의 共通된 指向을 反映하여 우리 두 나라 人民들 사이의 親善協助關係는 最近 年間 새로운 開化期에 들어섰읍니다.

불러불가담 政策은 帝國主義가 破産沒落되고 世界의 많은 나라들이 自主의 길로 나가는 우리時代 發展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온갖 形態의 侵略과 干涉 계속과 不平等을 反對하는 第3世界 人民들의 鬪爭에서 重要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러불가담 政策은 現時代 發展의 要求를 幅넓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各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團합시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全般的 國際情勢發展에 커다란 影響力을 미치

고 있습니다.

불력불가담 政策의 原則들은 우리 黨이 一貫하게 견지하고 있는 自主的인 對内外 政策의 原則들과 一致합니다.

얼마전 아바나에서 進行된 불력불가담 國家 調整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를 불력불가담 運動成員으로 받아들일때 대한 권고안을 採択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불력불가담 나라들과 한 대렬에서 反帝反殖民主義 共同鬪爭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決意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機會에 유고슬라비아 同志들이 우리나라를 불력불가담 國家成員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勞力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人民의 鬪爭을 積極 支持하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이오세프 브로즈 지토」 同志와 유고슬라비아 政府와 人民에게 깊은 謝意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의 原則에 기초하고 있는 朝鮮人民과 유고슬라비아人民사이의 親善團結을 매우 貴重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두나라 人民들 사이의 兄弟的 親善協助關係는 共同의 目的과 理想을 實現하기 위한 鬪爭을 進하여 영원히 強化發展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談話에서 朝鮮과 유고슬라비아 두나라 사이의 親善協助關係發展問題와 불력불가담 運動에 관한 問題를 비롯하여 互相 關心事로 되고 있는 問題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意見을 交換

하였으며 서로 有益한 經驗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過程에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親善과 友情은 더욱 두터워
졌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번 유고슬라비아 訪問이 우리 두나라
人民들 사이의 親善과 協助關係를 強化 發展시키며 現時代의 추세
를 반영한 불력불가담 運動을 擴大 發展시키는 重要한 계기로 되
리라고 確信합니다.

1. 1944 8-10 201
2. 1944 10-10 100
3. 1944 11-10 100
4. 1944 12-10 100
5. 1945 1-10 100
6. 1945 2-10 100
7. 1945 3-10 100
8. 1945 4-10 100
9. 1945 5-10 100
10. 1945 6-10 100
11. 1945 7-10 100
12. 1945 8-10 100
13. 1945 9-10 100
14. 1945 10-10 100
15. 1945 11-10 100
16. 1945 12-10 100
17. 1946 1-10 100
18. 1946 2-10 100
19. 1946 3-10 100
20. 1946 4-10 100
21. 1946 5-10 100
22. 1946 6-10 100
23. 1946 7-10 100
24. 1946 8-10 100
25. 1946 9-10 100
26. 1946 10-10 100
27. 1946 11-10 100
28. 1946 12-10 100
29. 1947 1-10 100
30. 1947 2-10 100
31. 1947 3-10 100
32. 1947 4-10 100
33. 1947 5-10 100
34. 1947 6-10 100
35. 1947 7-10 100
36. 1947 8-10 100
37. 1947 9-10 100
38. 1947 10-10 100
39. 1947 11-10 100
40. 1947 12-10 100
41. 1948 1-10 100
42. 1948 2-10 100
43. 1948 3-10 100
44. 1948 4-10 100
45. 1948 5-10 100
46. 1948 6-10 100
47. 1948 7-10 100
48. 1948 8-10 100
49. 1948 9-10 100
50. 1948 10-10 100
51. 1948 11-10 100
52. 1948 12-10 100
53. 1949 1-10 100
54. 1949 2-10 100
55. 1949 3-10 100
56. 1949 4-10 100
57. 1949 5-10 100
58. 1949 6-10 100
59. 1949 7-10 100
60. 1949 8-10 100
61. 1949 9-10 100
62. 1949 10-10 100
63. 1949 11-10 100
64. 1949 12-10 100
65. 1950 1-10 100
66. 1950 2-10 100
67. 1950 3-10 100
68. 1950 4-10 100
69. 1950 5-10 100
70. 1950 6-10 100
71. 1950 7-10 100
72. 1950 8-10 100
73. 1950 9-10 100
74. 1950 10-10 100
75. 1950 11-10 100
76. 1950 12-10 100
77. 1951 1-10 100
78. 1951 2-10 100
79. 1951 3-10 100
80. 1951 4-10 100
81. 1951 5-10 100
82. 1951 6-10 100
83. 1951 7-10 100
84. 1951 8-10 100
85. 1951 9-10 100
86. 1951 10-10 100
87. 1951 11-10 100
88. 1951 12-10 100
89. 1952 1-10 100
90. 1952 2-10 100
91. 1952 3-10 100
92. 1952 4-10 100
93. 1952 5-10 100
94. 1952 6-10 100
95. 1952 7-10 100
96. 1952 8-10 100
97. 1952 9-10 100
98. 1952 10-10 100
99. 1952 11-10 100
100. 1952 12-10 100

Ⅲ. 对自由圈 政策

1. 对外政策 概觀

北傀의 对自由圈 基本政策은 全般的인 对外政策目標와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한마디로 韓半島 赤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確保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北傀의 对外政策 目標는 共產圈 및 中立圈外交를 通하여 分断된 韓半島를 北傀主導下의 「하나의 韓國」으로 浮刻시키는 同時에 对自由圈에 對해서는 分断圈 同時承認推勢에 變應하여 北傀를 韓國과 對等한 位置 또는 優位에 서게 함으로써 結果적으로 「하나의 朝鮮」(赤化統一)을 達成하는 條件을 造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北傀의 对自由圈 基本政策은 上記한 바와같이 分断圈 同時承認 推勢에 迎應하여 「2個의 韓國」觀을 固定시키는 過程에서 北傀의 國際的 地位를 強化시키며 反射적으로 韓國의 地位를 弱화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对自由圈 政策基調에 關해 金日成은 72.12 最高人民會議 5期 1次會議 演說을 通해 “우리나라와 좋은 關係를 맺으려 하며 朝鮮半島의 南과 北에 對하여 侵略的 性格이 없는 均等한 政策을 實施하는 資本主義 나라들과도 平和共存과 互惠平等의 原則에서 國家的 및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를 맺기 위하여 努力할 것” 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上記 基本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北傀의 外交活動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自由圈接近 방식에 있어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共同戰術을 活用하거나 이의 擴大發展에 의한 接近을 試圖한다는 点이다. 즉 北傀는 反帝統一戰線을 活용한 接近, 自由世界の 左傾團體를 利用한 接近, 그리고 심지어는 自由世界 國家間的 矛盾을 利用하여 接近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關聯되는 金日成의 公式發言을 살펴보면 68.10. 또리콘티넨 달誌 8 号에 掲載된 論文에서 “每個의 나라들은 共同的 敵을 배려부시고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反帝統一戰線을 이룩하고 反美 共同行動을 取해야 할 것이다.” 라고 主張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는 民主主義的 權利와 社會主義를 爲하여 鬪爭하는 資本主義나라의 勞動階級과 勤勞人民들의 革命鬪爭을 積極 支持한다. (62.10 最高人民會議 3 期 1 次會議 演說), 또한 우리는 美帝들과 프랑스나 日本, 그리고 그밖의 帝國主義들 사이의 갈등과 矛盾도 利用해야 하며 美帝를 最大限 孤立시켜야 한다. (64.2 黨中央委 4 期 8 次 全員會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北傀는 對自由圈 關係改善을 追求하면서도 反帝反美鬪爭路線을 固守하고 있다. 이에 關해 金日成은 65.10. 黨創建 20 周年 紀念報告에서 “서로 다른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과의 平和共存政策은 社會主義나라들의 對外政策의 한 側面에 지나지 않으며 決코 여기에 反帝國主義鬪爭을 녹여 버리거나 이것으로 하여 反帝國主義鬪爭을 弱化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主張하는가 하면 66.10.

党代表者會議에서는 “社会主義 나라들이 帝國主義 나라들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다 하여 여기에 反帝鬭爭을 溶解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反帝鬭爭을 弱화시켜서는 안된다”고 再三 強調하고 있다.

셋째, 北傀는 그들의 反帝鬭爭路綫의 弱化를 憂慮하면서도 当面하게는 自由圈과의 關係改善을 通해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려 하고 있다.

金日成은 67.12 最高人民會議 4期1次 會議에서 “資本主義國家와의 經濟的 實務關係는 副次的 意義를 갖는다”고 規定하면서도 經濟實利의 必要性에 關해서는 “우리는 나라들 사이의 經濟協助를 反對하거나 門을 닫아매고 社会主義를 建設하자는 것이 決코 아니다……우리는 每個나라가 自立的인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基礎위에서 서로 協助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完全한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나라들 사이의 經濟協助를 끊임없이 擴大 發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65.4. 알리아르함 社会科学院 演說)고 強弁함으로써 經濟的 實利 追求가 對自由圈 活動目標의 하나임을 들어 내고 있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北傀의 對自由圈接近 活動을 沿革的으로 조감해보면 50年代는 56.4.3次党大會에서 “社会制度가 相異한 나라들과의 政治的 連繫”를 強調, 中立圈과의 關係改善을 꾀했고 60年代初부터는 61.9 4次党大會 報告에서 나타난 日本과의 正常的 關係追求發言을 비롯하여 62.10. 最高人民會議 3期1次 會議에서는 “北傀와 좋은 關係를 맺으려는 資本主義國家와의 國家的

關係改善”을 公公然히 主張해 나서 自由國活動 企圖를 露呈 시켰던 것이다.

2. 各 國 別 活 動 力 點

가. 美 國

北傀의 美國觀은 帝國主義의 元凶으로서 朝鮮人民과 世界人民들 의 共同의 敵으로 생각하고 있다.

61.9. 4次黨大會報告에서 北傀는 美帝國主義는 南朝鮮人民들의 첫 敵자는 鬪爭對象이며 全體朝鮮人民의 철전지 원수이다 라고 밝힌바 있으며, 또한 67.8. “프리카콘티넨탈” 創刊號 論說에서는 美帝國主義는 全世界에 侵略의 魔手를 뻗힘으로써 世界 모든 人民들의 共同의 원수로 되었으며 地球上에는 美帝國主義에 依하여 自己의 自主權을 侵害당하지 않고 있거나 美帝의 侵略威脅을 받지 않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強調하는 한편 美帝國主義者들은 卽, 阿 “라틴” 아메리카 人民들의 解放鬪爭을 苛酷하게 彈壓하고 있으며 새로 獨立한 나라들 을 다시 隸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侵略行爲의 破壞 活動을 敢行 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美帝는 自己들의 強盜的 本性을 露骨的으로 드러내놓고 社會主義나라를 反對하는 侵略戰爭을 벌려놓고 있으며 武力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內政에 干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北傀는 美國의 基本 對外戰略에 對해서도 68.10. “프리카콘티넨탈” 8號 論文에서 큰 나라에 對해서는 關係惡化와 對決을 回避하여 작은 社會主義 및 新生獨立國에 對하여는 武力으로 各界 擊破를

하고 思想的 攻勢強化로 内部로부터 互解를 誘導하면서 이러한 狀況에 基礎하여 軍備增強을 위해 軍事基地 및 侵略的 同盟을 強化하는 한편 全面戰爭과 核戰爭의 準備와 同時 局部戰爭과 特殊戰爭을 露骨的으로 敢行하고 있다고 밝히고 以上과 같은 內容을 北僞는 美國의 基本對外 戰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는 71.4. 最高人民會議 4期 5次 “허담 報告”를 통해서 이는 美帝의 常套的인 兩面術策의 재판이며, “힘의 政策”의 破産에서 오는 美國의 世界支配體系의 崩壞를 가로막기 위하여 죽어가는 者들이 꾸며낸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戰爭政策으로 아시아 人民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되살아난 日本軍國主義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라 신랄하게 非難을 加하고 있으며, 同報告를 통해 美日 共同聲明은 저들의 아시아 戰略이 무너져가는 歷史的 위기를 背景으로 되살아난 日本軍國主義勢力을 아시아 侵略의 主되는 타격력으로 내세우며 그에 대한 代價로 日本軍國主義者들에게 지난날의 殖民地勢力圈에 다시 侵透하도록 保障하여 즐거움을 공공연히 世上에 宣布했으며, 美日共同聲明發表後 美帝는 아시아에서 侵略과 戰爭政策을 보다 強化하면서 侵略的 軍事基地로서의 日本의 軍事的 潛在力을 自己들의 侵略政策 遂行에 더욱 積極的으로 利用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非難했던 것이다.

또한 北僞는 反美 鬭爭의 動機로서 韓半島의 赤化統一과 社會主義 革命의 勝利, 北僞 住民들의 戰爭準備動員 및 日本軍國主義再生 防止 등을 내세우고 있는바,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대해서는 48.3. 2次

党大会 報告에서 밝힌바와 같이 朝鮮民主主義人民 共和国에서의 愛
國的民主勢力과 売國的인 反民主勢力間의 鬪爭은 만일 美國의 反動
的인 干涉만 없었더라면 아주 쉽게 아무런 複雜性도 없이 朝鮮人
民의 要求대로 解決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後 朝鮮의 民主
勢力은 國內外反動勢力과 鬪爭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美帝
를 頭目으로 하는 國際反動勢力과 鬪爭하게 되었다고 밝힌 反面,
61.9. 4次党大会報告에서는 美國軍隊가 南朝鮮을 強占하고 있는한
朝鮮에서의 공고한 平和와 나라의 平和的 統一은 바랄 수 없으며
南朝鮮人民들은 참다운 自由와 解放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 65.1. 워싱턴 所在 朝鮮問題研究所長에게 보낸 回答書翰에
서 ”는 祖國統一의 根本障礙物은 南朝鮮을 軍事的으로 強占하고 우
리나라의 內政에 干涉하여 民族分裂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美帝國主
義者들이라고 하여 韓半島의 赤化統一問題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다.

北傀가 反美鬪爭을 펼치게 된 다른 하나의 動機는 社會主義 革
命의 勝利에 있다.

62年 10月 北傀最高人民會議 3期1次 會議報告에서 “戰爭의
根源은 帝國主義에 있으며 오늘 侵略과 戰爭의 主되는 勢力은 美
帝國主義者이다. 帝國主義者들 特히 美帝國主義者의 侵略과 戰爭挑
發政策을 反對하는 鬪爭을 떠나서는 어떠한 平和鬪爭에 對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66年 10月 党代表者大会報告에서 “美帝國主義는 世界人民들
의 첫째가는 鬪爭對象이다... 오직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堅決한

鬪爭을 통해서만 世界平和를 守護할 수 있으며 人民들의 革命鬪爭이 勝利를 達成할 수 있다”고 強弁하고 있다.

또하나의 動機는 北韓住民들을 戰爭準備에 動員하는데 있다.

72年 5月 N.Y.T 紙 記者會見에서 金日成은 “우리가 戰爭準備를 하는데서 가장 重要한 것은 全体人民이 美帝를 미워하도록 教養하는 것이다. 全体人民을 美帝를 미워하는 思想으로 教養하지 않고서는 技術的 優位를 자랑하는 美帝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言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北韓住民들을 戰爭準備에 動員하기 爲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다른 하나의 動機는 日本軍國主義의 再生을 防止하는데 있다.

48年 11月 民青 3次大會 演說에서 金日成은 “美帝는 우리民族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日本帝國主義를 再武裝시키며 日本帝國主義까지 우리人民을 反對하는 鬪爭에 끌어들이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61年 9月 4次黨大會 報告에서는 “특히 美帝는 아시아에서 戰爭의 根源으로 되는 日本軍國主義를 되살려 極東侵略의 突擊隊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美帝國主義者들은 日本反動支配階層들과 日美軍事條約을 맺었으며 侵略的인 東北아세아 軍事同盟을 꾸며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했다.

北傀가 取하고 있는 反美鬪爭方法은 從來는 “우리는 國際問題들에서 原則을 버리고 美帝와 妥協하는 일은 絶對로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66.10 黨代表者大會報告)는 強硬一辺倒의 態度를 보였으나 72年以後에는 從來의 強硬政策과 아울러 人民外交戰術에

의한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鬭爭方法에 있어서 이를 細分해 보면 첫째 美國을 警戒하기 爲한 反美感情教養 및 反美勢力擴大이다.

55年 4月 우리 革命의 性格과 課業에 관한 데제에서 “우리는 美帝國主義 侵略勢力을 불리치며…………… 革命의 勝利를 爭取할 수 있도록 모든 革命力量을 集結하여 간고한 鬭爭을 展開하여야 한다”고 했다.

둘째, 平和, 民主主義, 社會主義를 爲한 全世界人民들의 鬭爭과 連結에 있다.

68年 10月 「프리 콘티넨탈」 8号 論文에 의하면 “反美鬭爭은 世界 모든 人民들이 回避할 수 없는 共同의 義務이며 가장 先次的인 革命課業이다”고 말하고

70年 11月 5次黨大會에서의 報告에서는 “오늘날 國際舞臺에서 美帝國主義侵略과 戰爭政策을 反對하는 鬭爭보다 더 切迫한 課業은 없다”라고 金日成은 言動한바 있으며 또한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朝鮮人民의 鬭爭은 平和와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爲한 全世界 人民들의 鬭爭과 直接 連結되어 있으며 美帝國主義 侵略政策을 反對하는 아세아 人民들의 民族的 自由獨立과 공고한 平和를 守護하기 위한 鬭爭의 重要한 一環으로 되고 있다”고 56年 4月 3次 黨大會報告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北傀 社會主義憲法 16條에는 “國家는……………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團結하며 그들의 民族解放鬭爭

과 革命鬪爭을 積極支持 성원한다 *고 全世界人民들의 鬪爭과의 連
結을 꾀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人民外交戰術에 의한 對美接近에 있다. (72年以後)
北傀가 從來에는 對美強硬一辺倒의 政策으로 一貫했으나 美國内の
反戰勢力擴大, 越南戰 종결 및 美, 中共接近으로 反美鬪爭名分の 弱
化가 招來되었기 때문에 對美接近을 試圖하였다.

北傀는 美國內 左翼 및 反戰勢力과의 接近을 摸索하는 傾向이
있는데 그 例로는 72年 6月 21日 W.P와의 記者會見에서
우리 朝鮮人民들은 美國人民과 美帝國主義者 들과는 區別한다.

朝鮮人民들은 美國人民들과는 現在는 勿論이고 未來에도 關係改善
을 希冀한다고 主張했으며,

72年 5月 NYT와의 記者 會見에서는 우리는 美國政府의 反動
政策은 反對하지만 美國人民들은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美國에
우리의 좋은 親友들이 많아 질것을 願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한
우리는 美國人民들에게 우리의 正當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爲하여
우리나라 記者들이 美國에 가는 것도 必要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는 制限된 範圍에서 美國記者들과 民主人士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歡迎하며, 이러한 米往과 交流는 두나라 人民들 사이의 理解
를 促進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으며 美國內 左翼 勢
力 및 反戰勢力과의 接近을 爲한 実績으로는 69年 8月과 70年
10月 兩次에 걸쳐 美國 共産黨 代表團을 2회에 걸쳐 招請하였
으며, 71年 2月에는 美國 朝鮮 親善公報센터를 設立하고, 72年

5월부터 6월 사이에 NYT, WP 記者 및 코텐 教授를 招請 하였고, 人種分類를 利用하여 黑人과의 유대 強化를 企圖하기 爲하여, 70年 11月 黑人 펜서당을 北傀가 招請하여, 共同聲明에서 美國 黑人들의 鬪爭과 南朝鮮 人民들의 鬪爭에 있어서의 共通性을 強調 하였다.

北傀는 美國 政府에 對한 態度를 變化하였는데 72年 5月 NYT 와의 記者 會見에서 “美國과의 關係는 全적으로 美國 政府의 態度에 달려 있으므로 美國 政府가 內政 不干涉, 駐韓美軍撤収, 언커 크 解体, 日本軍國主義 再生 策動 中止 및 그들을 南朝鮮에 끌 어 들이는 行動을 中止 하는 등의 政策을 改變한다면, 美國에 對한 政策을 바꿀 것이라고 主張했으며, 72年 6月 WP와의 記者會 見에서 駐韓 美軍이 撤収한다면, 美國과 通商, 經濟關係를 樹立하는 데 歡迎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對美 通商關係를 示唆했다.

나. 仏 蘭 西

北傀는 仏蘭西가 美國을 反對하고 있으며, 英國과 仏蘭西 사 이에도 深刻한 對立이 造成되고 있다고 判斷하여, 仏蘭西의 現實主義的 外交政策을 逆利用하여 駐仏, 北韓 民間級 通商代表部の 地位 昇格을 爲하여 72年 7月 “슈당” 仏蘭西 外相 中共 訪問時 駐 中共 北韓大使는 通商 代表部の 地位 昇格 및 國交 樹立을 提議 하였으며, 72年 9月 北韓 貿易 副相을 訪問코 通商代表部の 地位 昇格 및 人員 增加를 要請하였으며, 72年 11月 仏蘭西 議會 外交 政策 委員長 “장드 브로이” 를 北韓에 招請 하는 등의

仏蘭西의 南北韓 等拒離 外交政策을 誘導하기 爲하여 多角的인 外交를 展開하고 있다.

한편 仏蘭西 側은 駐仏 北韓 民間級 通商 代表部の 地位 昇格 問題를 外務省이 檢討中이며, 70年 9月 駐仏 北韓 通商代表部の 北韓創建 記念行事を 默認하였고, 71年 12月 “스페심” 商社와의 石油化学 “프랜트 5,100 万弗 对 北韓借款을 承認하였고, 72年 11月 仏 議會 外交政策 委員長 “장드 브로이” 의 北韓 訪問을 默認하는 等の 北韓을 承認하지 않으면서 모든 特惠를 부여해 왔으며, 27次 UN總會부터 各種 國際會議에서 南北韓에 對하여 中立的인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仏蘭西가 北韓을 承認할 경우의 北韓의 利点만으로는 日本, 호주, 이태리 等 國際的 對韓 支援勢力인 主要自由陣營 國家들이 앞으로 取할 韓半島 政策의 先例가 되며, 仏蘭西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 親韓 아프리카 諸國의 北韓 承認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다. 伊 太 利

伊太利와 北傀의 關係를 살펴보면 北傀와의 共同 戰術에 의하여 活動하고 있는 伊太利 左翼 勢力과의 提携로 66.12月 伊太利 共産黨 代表團의 北傀를 訪問이 契機가 되어 双方 兩國間의 人士 往來가 있었다.

兩國間의 往來 實態를 보면 北傀에서 伊太利를 訪問한 것이 9件인 한편 伊太利에서 北傀를 訪問한 것이 무려 12件에 達하고 있다.

그리고 伊太利內에 있는 親北傀 団体 組織을 보면 68.1 月에 組織된 「伊太利-北傀 親善協會」와 71.10 로-마에서 組織된 「南朝鮮人民과의 連帶性委員會」, 72年 「킬라노」에 組織된 「南朝鮮 人民과의 連帶性 委員會」가 있다.

또한 北傀는 先進 技術資本 導入을 為한 經濟外交를 展開코자 68.11. 北傀 通商 使節團이 最初로 伊太利를 訪問코, 雙方 兩國間의 景氣 市場 關係 情報를 交換하는 한편 70.12 다시 北傀 通商 代表團이 北傀를 訪問코 雙方貿易事務所를 交換하였는가 하면 貿易協定을 締結하는 등 兩國間에 雙方 貿易 擴大 展望等에 論議한바가 있으나 別다른 成果는 없었다.

北傀의 伊太리에 對한 貿易高를 圖表로 表示해 보면

單位：1,000弗

年度 区分	68	69	70	71	72.4
北傀 輸出	596	310	426	2,985	1,800
北傀 輸入	1,000	1,840	1,450	944	498

다음은 伊太利의 對北傀 態度를 보면 73.1.3. 伊太利 外相은 兩國間의 通商關係 強化 및 南北對話 進展에 따라 外交 接觸을 할 것이라고 言動한 點으로 보아 北傀가 伊太리에 對한 積極的인 浸透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겠다.

라. 英國

다음으로 英國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1957.4.8. 英國이 對北
 傀 貿易 禁止解除로 北傀는 英國 共産黨과의 關係 維持 및 民間
 베이스 貿易發展을 갖게 되었다.

英國과 北傀의 人士往來를 具體적으로 記述하자면 英國 共産黨人
 物이 北傀를 2回나 訪問 하였으며 貿易關係로 5回나 다시 北傀
 를 訪問하는가 하면 北傀에서는 貿易 關係로 2回나 英國을 訪問
 한바도 있다. 그리고 北傀가 英國에 對한 貿易高를 圖表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單位：1,000 \$

年度 区分	68	69	70	71	72.6
北傀 輸出	1,655	1,065	1,451	576	186
北傀 輸入	371	728	378	803	335

北傀가 輸出한 主品目は 穀物類를 비롯 化學製品, 農産物이
 大部分이며, 反面 英國으로부터 北傀가 輸入한 商品은 工作機械 및
 船舶, 合纖纖維, 各種 프랜트 等이다.

마. 日本 關係

1) 北韓의 日本에 對한 評價

北傀는 48年 11 民青 3次大會演說에서 日本이 오늘 다른
 侵略勢力과 野合하여 또 다시 우리나라를 侵略하려고 策動하고 있
 는데 對하여 警戒성을 높이고 美帝의 比호 밑에 日本에서 軍國

主義가 되살아 났으며, 美帝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日本軍國主義者들이 아세아에서 危險한 侵略勢力으로 되고 있다는 事實을 (72:1. 요미우리會見) 強調하고 또한 71年 시아누크 歡迎演說에서도 그는 되살아난 日本軍國主義者들은 “아세아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美帝의 새아세아 政策”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實現하려고 妄想하면서 國內体制의 파쇼化를 促進하고 있으며 海外侵略의 野望을 露骨적으로 들어내놓고 있다고 말한 것과 同年 4月 最高人民會議 4期 5次會議時 許談의 報告에서도 日本이 美帝의 조정하에 아세아에서 日本이 또다시 過去の 軍國主義가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다고 強調하여 이에 世界平和와 아세아 나라들의 獨立과 安全에 對하여 逆說한바 있다.

北傀가 日本에 對하여 軍國主義 라는 呼稱을 使用하게 된 것은 56年 4月 3次 黨大會以後라 말 할 수 있다.

56年 4月 3次 黨大會에서는 從前과는 달리 日本內에서의 軍國主義 再生을 反對하는 日本人들이 存在한다고 宣傳하면서 日本內에 이에 對한 反對輿論을 高潮시키기도 하였다.

北傀는 우리의 外交活動을 妨害하며 自身の 國際的 孤立性의 理由로 韓日會談에 對하여서도 그들은 謀略과 陰謀를 취지 않았었다. 이것은 61年 4月 5日 金日成이가 日, 朝協會理事長 接見時에 그는 韓日會談이 美帝國의 調整하에 進行되어 軍事블럭인 東北아세아 同盟을 造作하는 策動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南朝鮮을 繼續 植民地 狀態로 엮매어 놓으려는 陰謀이라고 하여 마치 韓國이 日本의 植民

地로 금방 同和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비단 金日成의 發言에서 뿐만아니라 이러한 造作宣傳은 65年 5月 最高人民會議 3期 4次會議 決定에서도 그들은 韓日會談問題 를 오진 朝鮮人民의 意思를 代表할 수 있는 統一된 朝鮮政府만이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고 하여 그들의 妨害策動은 한층 더 深化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2) 對日鬭爭動機

北傀가 日本에 對하여 危脅을 느껴지자 北傀는 北傀의 安全保障을 意識하여 62年 10月 最高人民會議 3期 1次會議 報告 에서는 日本軍國主義者들은 韓日會談을 벌여놓고 南朝鮮에 對한 經濟的 侵略을 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南朝鮮을 끌어들이어 侵略的인 “東北아세아 軍事同盟”을 꾸며내려고 企圖하고 있다고 말하고 70年 11月 5次 黨大會報告에서도 日本軍國主義의 海外 侵略이 그 첫번째 攻擊對象으로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北傀는 自身の 安全保障을 기화로 日本과 美國을 鬭爭對象으로 하여 日本과 美國에 對한 侵略企圖를 事前に 防止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從來 使用하여 온 宣傳術策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北傀의 鬭爭對象은 主로 美國과 日本이며 以外에도 西獨을 때로 攻擊하여 나서기도 한다. 그것은 西獨과 日本은 過去 2次大戰의 主役이라는 點에서 그러하거니와 이보다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美國은 韓國의 가장 友好的인 國家로서 尤대를 公고히 하고 있는

点과 또한 西独과 日本은 世界第1의 經濟復興國家로써, 또 우리와 外交關係가 어느나라 보다 密接하기 때문이다.

北傀는 이들 三國이 世界最強의 國家로 된것은 植民地政策 帝國主義로써 他의 國家를 搾取한 결과라고 非難하면서 北傀는 帝國主義를 그들의 첫 鬭爭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63.2. 人民軍部隊政治部 聯隊長 以上 幹部 및 現地黨, 政權機關일군 앞에서 한 演說中에 찾아 볼 수 있다. 즉 帝國主義는 우리의 첫째 가는 鬭爭對象이다. 帝國主義는 다 나쁘지만 특히 우리가 싸워야 할 帝國主義는 美帝國主義와 日本帝國主義이다 라 말하고 있다. 비단 北傀의 鬭爭對象은 美國, 日本을 除外한 西独에 찾아볼 수 있다. 北傀는 西独을 日本과 同格으로 보고 西独도 日本과 같이 美帝의 비호 밑에 도사리고 있다고 66年 10月 10黨代表者大會 報告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報告에서는 世界平和를 守護하기 爲해서는 日本軍國主義와 西部獨逸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을 強化하여야 하며 日本軍國主義와 西部獨逸軍國主義는 美帝의 積極的인 비호밑에 急速히 再生되고 있으며 日本과 西部獨逸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 다시 새로운 戰爭 溫床으로 자라나고 있으며 이러한 形便에서 日本軍國主義와 西部獨逸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을 決코 疎忽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北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달리 日本과 美國에 對한 警戒心과 鬭爭對象을 強化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66.10. 黨代表者大會報告에서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은 아세아와 世界平和를 守護하기 위한 鬭爭이며 美帝를 反對하는 鬭爭의 重要한 一環이다라고 말하였고 70.11. 5次 党大会報告에서도 오늘 아세아 人民들과 世界進歩的 人民들 앞에는 美帝國主義 侵略을 挫折시키는 것과 함께 日本帝國主義의 再生을 反對하여 鬭爭하여야 할 매우 切迫한 課業이 나서고 있다 라든가 71.4. 最高人民會議 4期 5次會議에서 許淡이가 한 報告內容은 아세아에서 日本이 다시금 새 戰爭의 發源地로 자라난 以上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세아와 世界는 決코 平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自信들의 6.25와 같은 武力侵略을 隱蔽하여 그들의 武力策動을 韓國에서 다시금 突發하기 爲한 謀略 策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3) 對日鬭爭方法 (對日政策)

北傀는 對日鬭爭의 方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對日政策을 내세우고 있는 바 그 原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6.10. 党代表者大會의 報告」에 의하면

우리는 日本 支配層에 對하여 幻想을 갖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아무런 期待도 걸지 말아야 한다. 日本 軍國主義의 危險성을 보지 않고 사또 政府와 가까히 하는 것은 事實上 日本 支配層에 海外 膨脹을 鼓舞하여 주며 曲細曲에서 美帝의 地位를 強化하여 주는 것으로 된다.

둘째. 社會主義 나라들은 日本과 經濟的 關係를 發展시킬 수 있으나 日本 支配層과 政治的 問題를 가지고는 어떠한 흥정도 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사또政府와의 關係는 어디까지나 日本人民의 利益과 全般的인 反帝鬭爭의 利益에 符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68.9.北傀創建 20周年 記念報告」에 의하며 社會主義 나라들이 日本과 經濟關係를 가지거나 美日間の 矛盾이 앞으로 激化되는 경우에 그것을 反帝鬭爭의 利益에 맞게 利用할 수 있으나 決코 여기에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을 溶解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을 弱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對日政策을 表明하였다.

가) 反帝, 反美鬭爭의 一環으로 汎世界的인 反日鬭爭誘導 또한 北傀는 「70.11. 5次黨大會」를 通하여 「오늘 亞細亞 人民들과 世界進歩的 人民들 앞에는 美帝國主義 侵略을 挫折시키는 것과 함께 日本軍國主義의 再生을 反對하여 鬭爭하여야 할 매우 切迫한 課業이 나르고 있다.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은 亞細亞와 世界平和를 지키기 위한 鬭爭이며 美帝의 亞細亞 戰略을 泯止 破綻시키기 위한 鬭爭의 重要한 고리이다. 世界の 모든 平和 愛護人民들이 美帝를 反對하는 것과 함께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을 더욱 強化하여야 하며 一致한 行動으로 그의 侵略的 野望을 꺾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反帝 反美鬭爭의 一環으로서 汎 世界的인 反日鬭爭을 誘導하고 있다.

나) 重細重에서 日本影響力과 韓.日關係 勘案, 對日關係正常化 繼續企圖

또한 北傀는 「56.11.26. 勞動新聞社說」을 通하여 우리 共和國政府는……過去 11年間 日本과의 關係 正常化에 特別한 關心을 가져왔으나 이것은 오늘날까지 實現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民主主義的, 自主的인 發展을 願치 않으며 日本을 國際的으로 孤立시켜 자기에게 一方的으로 隸屬시키려는) 美國支配層의 策動과 그에 盲從하는 日本内外 極少數의 反動勢力의 妨害策動이다... 朝日關係의 正常化를 促進시키는 것은 오직 日本指導層의 態度如何에 달렸다 라고 發表하여 重細重에서의 日本 影響力과 韓日關係를 勘案한 對日關係正常化를 繼續 企圖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北傀는 日本에 對한 關係正常化를 追求하는 努力은 黨 報告에서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記者會見等 그의 發言을 通하여 數次 提起되어 왔다. 즉,

72.1. 金日成은 日本 読売新聞 記者와의 會見時 「朝·日 두나라 사이의 關係問題에 對한 우리의 立場은 明白하고 또 始終一貫하며, 우리는 지금도 두나라 사이의 (非正常的인 事態를 하루 빨리 끝장내고) 正常的인 關係를 樹立할 것을 念願하고 있다」고 하고

「朝·日 두나라 사이에 友好的인 關係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國交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日本政府가 우리나라에 對한 態度 (敵對視政策拋棄, 韓日條約廢棄, 南朝鮮再侵策動中止 등)을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本政府가 우리나라에 對하여

友好的으로 나온다면 모든 問題들이 제대로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72.9. 日本 毎日新聞 記者와의 會見時에는 「지금 日本政府가 社会制度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도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우리나라와도 (平等한 立場에 對하여 平和共存의 5個原則에 基礎하여) 国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從來의 對日關係正常化條件 緩和코 日本의 南北韓均等政策이라도 誘導하려고 試圖>

○ 對日關係正常化條件 - 韓日條約廢棄 및 請求權主張

北傀의 「祖國平和統一委員長」인 洪命燾는 이와 關聯하여 64. 2.4. 韓日會談反對聲明이라는 것을 發表할 때 「朝鮮人民들은 賠償을 要求할 絶對的인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日本은 이를 支拂할 義務가 있다」고 했으며 또한 北傀 最高人民會議 第3期 4次會議 決定에서는,

「韓日會談에서 討讓·決定되는 어떠한 問題도 그것을 認定하지 않을 것이며……그것은 오직 真正으로 朝鮮人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統一된 朝鮮政府만이 解決할 수 있는 問題들」이라고 하고 「朝鮮人民은 對日賠償請求權을 繼續 保有하며 이 嚴然한 權利를 반드시 行使할 것이다」라고 한바 있다.

○ 上記條件 緩和

金日成은 72.4. 日本의 N.H.K 朝日 共同 3社와의 會見하는 차리에서 「朝日條約이 있어도 日本政府가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

合法政府라는 第3条를 無視하고 國家間的 關係를 樹立하려 한다면 그것은 可能하며…… 그것으로 南韓政府가 唯一한 政府라는 根拠는 없어질 것이므로 朝鮮人民의 平和統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또 73.2. 東京新聞 編輯局長과의 會見時에는 「韓日關係는 (日·北韓間的 會談過程에서 不可避하게 論議될 것이지만 同問題는) 쉽게 解決될 것이다.

南北韓과 同時에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의 數가 增加되고 있다」고 하는 한편 「過去에 對해서는 補償을 請求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日本政府의 움직임에 따라서 諸般 分野에서 解決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한달 前인 72.1. 日本読売 記者와의 會見時에는 「朝日 두나라 사이에 國交가 樹立되던 日本政府가 우리나라에 對하여 取하여 온 이때까지의 그릇된 政策들이 無効化될 것이다」고도 한바 있었다.

○ 日本의 南北韓均等政策誘導

金日成은 72.9. 日本毎日新聞記者와의 會見時 「다나카內閣은 우리나라에 對한 敵對視政策을 사또內閣보다 조금 緩和하는 氣運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政府가 우리나라와 善隣關係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一辺倒政策을 쓰지 말고 朝鮮半島의 南과 北에 對하여 어떠한 侵略的의 性格도 없는 均等한 政策을 實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共同戰線戰術에 의한 日本左翼勢力과의 接近

○ 日本軍國主義再生反對鬭爭을 위한 日本人民과의 紐帶強化

金日成은 72.1. 日本読売新聞記者와 會見하는 자리에서 「日本

軍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을 沮止시키는데서 日本人民들의 鬪爭은 매우 重要하다」고 했는가 하면 同年 5月 日本革新系 市長代表團과 面談할 때에는 「日本人民들의 이러한 鬪爭은 곧 朝鮮人民에 對한 支持로 된다고」 말 하였다. 또한 北傀는 「最高人民會議 第3期 4次會議 決定에서 오늘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며 美日反動들의 侵略的結託을 짓부수기 위해서는 또한 日本人民들의 鬪爭을 支持하며 그들과의 連帶性을 強化하는 것이 重要…………… 朝鮮人民은 日本人民의 正當한 鬪爭을 全的으로 支持하며 그에 戰鬪的 連帶性을 表示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北傀「政府政綱」이라는 데에서는 「우리는 日本의 民主力量을 비롯한 並細並의 모든 反帝力量과 굳게 團結하여…………… 日本軍國主義의 再生과 그 侵略策動을 反對하여 역세계 鬪爭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對日關係正常化의 壓力勢力으로 利用하기 위한 日本人들과의 紐帶 強化

56.4. 北傀의 「第3次 黨大會報告」를 보면,
「우리나라와 親善的 外交關係를 設定한데 對한 日本人民들의 眞摯한 努力과 研究는 最近에 와서 더욱 높아가고 있다. 우리 黨은…… 日本人民들과의 親善과 協調를 強化」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한편 金日成이 72.1. 日本読売新聞記者와 會見할 때 「朝鮮人民과

日本人民이 共同으로 成果있는 國爭을 벌인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國交를 樹立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 經濟計劃遂行을 위한 日本의 技術, 資本 導入

金日成은 58.11. 全國市, 郡黨 煽動員들을 위한 講習會에서 演說時 「우리는 電力………시멘트 生産에서 日本을 앞선다. 全般的으로 機械工業은 우리보다 日本이 發展한 것만은 事實이다」고 하고 72.1. 日本読売新聞記者와 會見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日本과 國交를 맺기 前이라도 可能的 範圍에서 人事來往을 많이 하여 經濟, 文化的인 分野에서 交易과 交流를 널리 進行할 用意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72.5. 日本革新系 市長代表團과 面談할 때에는 「지금 日本에는 鉄磁石이 없어 濠洲, 南美에 까지 가서 사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鉄磁石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우리가 日本에서 사와야 할 것도 많다」고 하였다.

4) 日本政府의 對北韓態度

- 北韓承認 바탕에서 諸般交流擴大 -

73.3.14 日本의 大平外相은 參議院 豫算委에서

「北韓과의 非政治的關係는 年次的으로 擴大해 갈 方針이며, 實際로

貿易이 늘어나고 人的交流도 活潑해 지는 健全한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을 政府로서 承認할 생각은 없다」고 言明하였다.

IV. 北韓의 對中立國政策

1. 對中立國政策의 基本路線

北韓의 對中立國 政策은 共產主義集團의 一員으로서 世界赤化를 爲해서 이를 遂行하기 爲한 하나의 戰術이다 卽, 「우리 黨은 世界의 鞏固한 平和와 安全을 爲한 鬪爭에 繼續 그리고 積極的으로 參加 할 것이며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其他 人民民主主義 諸國家들과의 兄弟的 親善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며…… (中略) 同時에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共存에 對한 「레닌」의 原則을 堅持하며 自主權의 互相尊重과 平等權이 立脚하여 世界 모든 平和愛好國家들과의 政治的 및 實務的 運繫를 맺기 爲하여 努力하여 야겠음」 이라고 1956.4.23. 北傀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그 基本路線은 表明했다.

2. 對中立國 政策 變遷過程

가. 第1段階 (1955 - 1965)

—對中立國 浸透 萌芽期—

(1) 「반동會議」를 契機로 亞·阿地域接近 摸索

「반동會議는 植民主義를 反對하여 鞏固한 平和를 指向하는 數億萬 亞細亞·아프리카 人民들의 一致한 合議를 表明…… 이地域 人民들의 長成하는 團結을 보임.

(56.4.23 黨3次大會 報告)

(2) 北傀 労働党은 56.4.23 党第3次 大会에서 中共 및 蘇聯의 平和共存政策表明에 따른 中立国과의 關係改善 切感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表明했다. 即, “最後에 있어서 蘇聯과 中共의 平和政策과 平和를 爲한 人民들의 共同鬪爭에 依하여 國際的狀態 緩和하기 爲한 事業에서 적지 않은 成果들이 達成되었음” 또한 1961年 9月 第4次 党大会報告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좋은 關係를 맺기로 바라는 資本主義 나라들과도 正常的인 關係를 맺으며, 經濟, 文化 交流를 發展시키기를 바랍”이라고 表明하고 있다.

(3) 反帝, 反植民主議鬪爭과의 連帶性 強化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人民들의 共通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反帝, 反美鬪爭은 서로 支持하는 關係에 있음” (67.8.12 트리콘티넨탈 創刊호의 金日成 論說)

“反帝, 反美鬪爭을 힘있게 發展시키기 爲해서는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모든 地域, 모든 나라, 모든 党派, 모든 사람들, 모든 力量의 戰鬪的 團結을 最大限으로 強化하는 것이 重要함.”

(68.10.8 트리콘티넨탈 8호의 金日成 論說)

(4) 亞細亞, 阿洲人民鬪爭

라틴아메리카 人民鬪爭 (第2 中間 地帶論)

“우리党和 共和國 政府는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民族的 獨立國家들과 友好的 關係를 맺으며 發展시키는 것을 對外政策의 重要한 한고리로 삼고 있음” (61.9.11 党4次大会 報告)

○ 背 景

- 冷戰終結과 平和共存의 擡頭
- 國際政治의 多元化 傾向
- 亞·阿地域의 獨立國 大挙 誕生

나. 第 2 段階 (1966-1969)

— 中立國 積極 浸透時期 —

(1) “ 自主路線 ” 表明과 浸透活動 強化

“ 敎條主義를 反對하고 主体를 確立하기 爲한 鬪爭은 우리 黨 歷史에 重要한 자리임 ”

(2) 第 1 中間地帶 - 第 2 中間地帶로 擴大

“ 現情勢는 亞細亞와 歐羅巴·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나라와 작은나라 할것 없이 世界의 모든地域, 모든戰線에서 ” ...

(66.10.5 黨代表者 會議 報告)

다. 第 3 段階 (70 ~ 現在)

— 柔軟外交로 戰術轉換 —

(1) “ 國際情勢에서 提起된 몇가지 問題에 對하여 ” (71.11.15

黨 5 期 3 次 全員會議 報告)

○ 背 景

- 71.8 南北赤十字會談 提議
- 71.11 中共, UN 加入
- 72. 2 닉슨, 中共訪問
- 72. 5 닉슨, 蘇聯訪問

(2) 中共 偏向한 北傀의 外交活動強化

“中共이 UN과 그의 모든 機構들에서 合法權利를 회복하게 된것은 中共의 偉大한 勝利이며 正義와 眞理를充分히 여기는 世界 모든 進歩的人民들의 共同의 勝利임”(71. 10. 28 勞動新聞 社說)

3. 地域別 및 國家別 活動

가. 中東亞 地域

아랍 民族主義 政治努力 形成과 이스라엘 鬪爭 美·英·仏의 強大國의 影響力은 初期부터 이 地域에 反西方의 色彩를 띄게 하였으며 아프리카 地域은 19世紀 仏(42%) 英(15%) 벨기에(9%) 등의 植民地 解放에서 大部分 獨立, 유엔에서 큰 그룹을 形成하고 大部分 一人体制로 中立外交 政策을 基本 路線으로 採択하고 있음. 地域 協力機構가 있으나 諸國의 當面한 對內外的 問題로 行動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음.

(1) 反帝, 反植民主義 및 民族解放 鬪爭 支援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植民主義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民族的 獨立國家와 協助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 왔으며 民族解放運動을 積極 支援하고 있음.”

(1958. 9. 8. 共和國 創建 10周年 紀念 報告)

○ “民族 解放鬪爭을 積極 支援하는 것을 對外政策의 重要한 原則으로 삼음.”

(2) 파레스티나 解放鬪爭 支援 및 아랍諸國과의 連帶性 強化

“朝鮮人民은 아랍人民에 對한 美帝의 侵略을 自己 自身에 對한 侵略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侵略者들을 反對하는 아랍 人民들의 正義의 鬪爭을 支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할 決意와 鬪志에 充滿되어 있음.”

(67. 6. 7 勞動新聞)

— 反西方路線을 利用한 아랍諸國과 紐帶 強化 稱策 —

“帝國主義 植民主義를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을 鞏固히 하며 繁榮을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콩고(브), 탄자니아, 모리타니아, 남부 예멘, 예멘, 아랍共和國, 브룬디, 소말리잠비아 人民들의 鬪爭을 積極 支援함.”

(68. 9. 7. 共和國 創建 20 돛 報告)

“朝鮮人民은 美英 帝國主義者들의 積極的인 支援 밑에 스미스 黨이 宣布한 非法的인 남로베시아의 獨立을 단호히 규탄하여 이를 粉碎하기 위한 짐바브웨 人民들과 全体 아프리카나라 人民들의 鬪爭을 積極 支援함.”

(3) 中共에 便乘한 浸透 強化

— 71. 9 中共 유엔 加入 —

“兄弟的 盟邦인 中和 人民共和國의 國際的 地位가 더욱 높아진 것은 지난날의 世界 政治 狀況에서 커다란 事變의 하나임”

(72. 1. 1. 金일석 新年사)

(4) “ 2 개 韓國 ” 露骨化와 北韓外交의 積極 攻勢

“ 오늘 國際情勢는 우리 人民의 革命 偉業에 有利하게 發展하고 있음 ” .

(72.1.1. 김일성 新年사)

“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広範한 社会与論은 72 年을 朝鮮의 해라 하고 있음. ”

(72.1.10. 김일성 요미記者와 會見)

※ 카메룬 (73.3) 우간다 (72.8) 北韓과 수교시 韓國의 說得 및 抗議 不考慮

나. 歐洲地域

(1) 傳統的 中立主義에 便乘한 段階的 接近

“ 資本主義 나라들과도 平和共存의 互惠 原則에서 國家的 政治, 經濟文化的 諸關係를 맺기 위해 努力할 것임 ”

(72.12.25. 5 期 1 次 最高 人民會議 김일성 報告)

(2) 人民外交 擴大와 親 北傀反韓勢力 扶植에 主力

“ 우리나라의 對外的 威信이 높아짐에 따라 아직 우리와 맺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를 승인할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 ”

(72.10.11. 중방)

다. 아세아 地域

이 地域은 東西洋의 民主, 共產間의 兩極化된 兩大勢力間의

圧力 속에서 低開発国 相互間 文化 等の 連続을 이루어 왔음.
네부의 非同盟 政策을 始初로 東南亞 首相會議 (54.4 : 코롬보 제
국 형성)에서 諸國家들의 利益을 위한 中立主義 標榜에 이어 中
共의 強大國 登場과 美, 中蘇의 接近은 “아세안”의 誕生과 3.29
아세안 會員國의 中共 承認 合議까지 이르게 되었음.

다. 亞州地域

(1) 經濟 및 文化的 浸透

1957年9月20日 最高人民會議 第2期 1次會議 北傀는
印度, 印尼, 버마 等 아세아 나라들과의 連帶性을 強化하며 互相利
益의 기초위에서 經濟的 및 文化的 연계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勞
力 할것이다” 라고 했다.

또 北傀는 56년 4月 25日 第3次 黨大會에서 “植民主義를 反對
하는 印度, 버마, 印尼, 아프카니스탄…… 및 기타 국가들과의 친선관
계를 樹立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으며,

1958年9月8日 共產國창건 10周年 記念式에서 南日은 “우리나
라와 印度, 印尼, 馬來, 버마, 세일론等 많은 나라들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 연계가 더욱 擴大되고 있다”고 했다.

(2) 反美統一前線強化

1971年8月6日 「시하누크」 환영 평양시 群衆大會에서

“印尼 共產主義者들과 人民들의 反帝 反植民主義 鬪爭은 아
시아 人民들의 共同利益에 이바지 하고있음”

“아세아의 革命的 나라人民들의 反帝 反美 統一前線을 더욱 強化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했으며,

1970年 11月2日 党5次大会에서 “오늘아세아는 제국주의를 反對하는 가장 熾烈한 鬪爭前線으로 反對 革命 鬪爭의 基本舞台로 되고 있다”고 했다.

라. 美洲地域

카나다, 美國, 멕시코를 除外한 大部分의 國家(23)들은 「카리브」海地域 및 中南美에 散在 되고 있다.

OAS(1949)의 美國을 主軸으로한 이 地域諸國은 強大國의 影響을 가장 받지 않은 地域이다.

큐바의 左傾化로 反美運動의 물결이 서서히 到來 「칠레」의 左傾化와 諸國의 利益을 爲한 反美路線 경향이 점차 대두 되고 있다.

○ 中南美地域 침투거점確保

中南美지역 침투 거점 확보에 관한 北傀의 政策 천명은 1966年 10月 5日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큐바革命의 勝利는 美國의 코앞에서 일어난 社會主義 革命의 첫勝利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偉대한 十月革命의 계속임…… 큐바共和國은 라틴아메리카에서 革命의 基地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1968年 10月 8日 「프리카콘티넨탈」 8號 金日成의 論說에서 “큐바革命의 勝利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社會主義 革命의 첫勝利이며 偉대한 十月革命의 계속이다”라고 했다.

또 同年 9月7日 共和國 創建 20 돛 金日成의 報告에서 “우리는 美帝와 親美獨裁政權을 反對하여 英勇한 武裝투쟁을 벌리고 있는 베네쥬엘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볼리비아, 도미니카, 캐루인민들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人民들의 革命鬪爭을 支持한다”고 선언했다.

